

해남군, 지역 방문객 체류기간 늘려 인구감소 대응

지역간 인구유치 경쟁 심화 고령화 등 인구감소 대응 체류기간 증대 관광활성화 지역 연계 관광콘텐츠 개발

해남군이 관광 등 해남방문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는 인구 전략 마련에 나섰다. 생활인구 확보로 지역 체류 인구를 늘려 인구감소에 대응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21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고령화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시책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 뿐 아니라 '체류하는 인구'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월1회 하루 3시간 이상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고 있다.

국가 총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난해 10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해남군은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인 지역상생 '강해영 프로젝트'가 시작을 알리고 있다. 강해영 프로젝트는 강진·해남·영암 3개 지역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생활인구를 유입·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상생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역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통해 단일 목적지 중심이 아닌 인접 지역을 연계 방문하고 권역 체류기간을 증대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객 등이 해남에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거나 해남사랑위더스 회원 등에 발급되는 해남사랑군민증 발급은 9600여명에 이르고 있고 하반기에는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도 시행된다.

해남사랑군민증과 디지털관광주민증을 가지고 관내를 방문하면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해 체류기간 연장에 도움을 주게 된다.

해남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해남에서 장기 체류하며 여행하면 숙

박비와 입장료·체험비를 지원하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와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프로그램 '땅끝마실' 장기 체류형 관광프로그램도 인기이다.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3개월간 마을에 머물면서 영농실습과 지역 탐방 등을 통해 해남살이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MOU를 맺은 관악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관악 to 해남 두 지역살이' 사업도 추진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생활인구의 증대가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수 있는 인구정책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해남과 관계하는 생활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 발송 완도군, 고령 납세자 편의 도모

완도군은 5월부터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지서를 '읽기 쉬운 큰 글씨 지방세 고지서'로 개선해 발송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고지서는 납부 세액과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 많은 내용이 작은 글자로 담겨 주요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활자 크기를 확대하고 납부 세액과 기한, 납부 계좌 등 주요 내용을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는 등 고령층 납세자나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ARS 전화번호를 고지서 전면에 기재해 납세자가 카드 결제를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앴다.

군은 우선 5월 체납 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한 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등 다른 세목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무안스포츠파크 임시휴장 실내수영장·골프연습장

무안군이 군민들에게 안전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과 골프연습장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5월 말부터 진행한다.

실내수영장은 오는 29일부터 7월10일까지 43일간, 골프연습장은 27일부터 6월27일까지 31일간 임시 휴장할 계획이다.

실내수영장은 지난해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 전도 우려가 지적된 외벽 유리글라스 교체와 수영장 내부 도장공사 및 시설개선을, 골프연습장은 노후화로 인한 건물 누수 문제가 발생해 내부 천장교체 등 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방학과 가을철 태풍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군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안=김행언 기자

강진군, 쫄쫄가무시증 주의 당부

강진군이 기온이 상승하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진드기에 의한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진드기를 통해 감염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쫄쫄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다.

4~10월에 주로 유행하기 때문에 농작업과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요즘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쫄쫄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되며 주요증상으로 발열, 두통,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의 감기몸살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관찰되기도 한다.

쫄쫄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 밝은색 긴소매 옷을 제대로 입기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뿌리기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 사용하기 △풀숲에서 용변 보지 않기, 옷을 풀밭에 벗어놓지 않기 △귀가 즉시 옷을 털어 세탁하고 목욕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강진=김윤복 기자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무안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

무안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고석만)가 지난 16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1일 무안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에 따르면 이날 활동에서는 주택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 내부 작업을 진행해 대상 가구가 깨끗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다.

한편 무안읍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민·관협력조직으로 15명의 대원으로구성돼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저소득 등 취약계층 세대에 주거 환경 개선 및 소규모 수리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다.

무안=김행언 기자

해수면 운항 유·도선 안전 점검 서해해경청, 200인 이상 선박 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해수면을 운항하는 유·도선 등에 대한 집중 안전 점검에 나섰다.

21일 서해해경에 따르면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지난날 22일부터 61일간의 일정으로 이 같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해해경은 해수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해양관련 공단 및 협회 등과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 승선정원 200인 이상의 유선과 차량적재 가능 도선, 이들 유도선이 계류 또는 정박하는 선착장을 핵심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서해해경 관내 점검 대상은 유·도선 27척, 선착장 31개소 등이다.

서해해경은 안전관리 체크 리스트에 따라 시설, 장비 등의 안전성 여부와 함께 법, 제도, 실태 등에 대한 개선점도 진단하고 있으며 점검 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점검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해해경은 지난해에도 유·도선 및 선착장 위험(핵심)시설 총 77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총 105건에 대한 위해 요소 등을 발견하고 미리 조치해 국민의 해양안전 제고에 앞장섰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가 지난 16일 무안읍 한 취약계층가정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에너지밸리포럼, 탄소중립 기후기술과 대응방안 논의

강영수 에너지공대교수 초청 인류 해결 5대 과제 제시 등

(사) 에너지밸리포럼(대표 문재도)은 21일 뉴나주시티호텔에서 강영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탄소중립 기후기술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64차 정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광주·전남도, 나주시 관계관을 비롯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KDN, 전력거래소, 광주·전남 소재 에너지 관련 기업체 임직원,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회원과 일반 시민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 강 교수는 향후 50년 동안 인류가 해결해야 할 5대과제로 에너지·환경·물·인구·식량문제를, 향후 100년 동안 인류 문명을 파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핵전쟁·치료불가능한 질병·기후변화·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무기를 제시했다.

신안군, 멸종위기 참달팽이 보전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신안군민들이 21일 흑산초등학교 홍도분교 일원에서 홍도 참달팽이 서식지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안군은 멸종위기 참달팽이 보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안군민 등 30여명이 홍도를 찾아 참달팽이 서식지 일원 환경정화 활동을 이날 펼쳤다.

지난 2021년 3월 신안군은 국립생태원

과 멸종위기 참달팽이 보전 협약을 맺고 관내 홍도·하태도 일원에 참달팽이 40개체를 방사했다.

신안군이 참달팽이를 방사한 이유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서 제3차 야생생물 보호기본계획,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

계획 등이 수립·이행됨에 따라 참달팽이 보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주민 인식증진과 지속가능한 서식지 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협의체는 신안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협의체들로 꾸려져 참달팽이 종복원과 서식지 보호·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하태도에 자연방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참달팽이 보전협의체 서식지 정화활동 행사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참달팽이 보전협의체 서식지 정화활동을 계기로 교육·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참달팽이 서식지 보호 유도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신안=홍일갑 기자